

Preparation for Greatness 창대함을 위한 준비 (창세기 40)

The Fallen Focus of Now

Joseph's life has certainly been marked with lows & few highs....We began the series in chapter 37 with this 17 year-old favoured son of Jacob. Joseph then became a victim of his brother's hateful crime of selling him into slavery. After being bought by Potiphar — Pharaoh's captain of the guard & rising to success as household manager, last week Joseph suffered great injustice when he became a victim of Potiphar's wife's lies & was sent to prison....but then as had happened in Potiphar's house, Joseph rose in authority to be a keeper of the other prisoners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This week we see what unfolds for Joseph in that prison — 'the pit' as he calls it. 41:1 indicates he was imprisoned at least 2 years (from the cupbearer's release to Pharaoh's dream). Perhaps he'd been imprisoned for more than half of that 13 year period from 17 to when he entered Pharaoh's service at 30...

In summarising what the Lord was doing in Joseph's life through this time, Scottish born pastor & theologian Sinclair Ferguson made mention of an illustration from the early puritan settlers of America — concerning the workings of old style watches & clocks. When you remove the back you'll notice a series of cogwheels — some turn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others. The point is that this is often how God works

Like Joseph, sometimes our lives seem to be going backwards — we wonder whether God is at work — we often forget or doubt that He is....sometimes we think if He is at work he must be cruel to have allowed such suffering to happen.

“지금”의 모습에만 집중하려 하려는 유혹.

우리는 요셉의 삶의 굴곡 가운데, 인생의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봅니다...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를 시작한 37 장부터 보면, 당시 17 살이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저지른 악의 큰 피해를 입고, 노예로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 가운데 성공하여, 모든 집안일을 감독하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요셉은 큰 불의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의 제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되고, 그가 매사에 형통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절은 요셉이 이런 감옥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41:1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요셉은 적어도 감옥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을 파라오 밑에서 30 살에 나이에 일하게 됐다고 한다면, 17 살부터 해서 약 1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청교도 목회자인 Sinclair Ferguson 이라는 분은, 당시 요셉의 삶을, 미국에 정착해 옛 시계를 고치는 청교도들의 삶의 비유 했습니다: “시계의 뒤를 열어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개는 다른 톱니바퀴들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비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뒤로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때로는 생각하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Though as we'll see for Joseph in Genesis 40.....trials are his method of preparing His servants for greatness — as He shapes a Christlike character through refining us...

Perhaps you find yourself believing the difficulty that you're facing at the moment proves that God isn't for you — maybe you're thinking that He's against you. It's the fallen focus that tempts all of us — to look at the now & conclude that it must mean that the Lord at best has forgotten us — at worst is against us.

Genesis 40 is the Lord's grace to each of us that though the Lord moves in mysterious ways & those ways may be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what we understand as good — Be assured — He is working it all out to prepare us for His glory that is coming.

The Providence of Joseph's Jurisdiction (1-8)

V1, 'Some time after this, the cupbearer of the king of Egypt and his baker committed an offence against their lord, the king of Egypt. And Pharaoh was angry with his two officers, the chief cupbearer and the chief baker, and he put them in custody in the house of the captain of the guard, in the prison where Joseph was confined. The captain of the guard appointed Joseph to be with them, and he attended them.'

Two of Pharaoh's officers — 'committed an offence' ... same word often translated 'sin' — in some manner they wronged the king. Pharaoh's response was anger. These two had the life of Pharaoh in their hands — it was the cupbearer's responsibility to serve drink & the baker's duty to organise the bread & the pastry. The cupbearer also acted as taste-tester for the king's drink to ensure that it wasn't poisoned...

우리가 창세기 40 장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통해 보듯이, 삶 가운데 환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를 적대시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는 현재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케 하려는 유혹입니다.

때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모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이는 장차올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며, 이것이 오늘 구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 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두 명의 애굽 왕의 관리가 “범죄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이는 죄를 짓는다고 번역되는 단어로, 이들이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들의 잘못으로 분노하였고, 이 두 관리의 목숨의 왕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관리 중 한 명은 술 맡은 자로, 왕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관리였고, 다른 관리의 떡 굽는 자로 빵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관리였습니다. 술 맡은 자는 또한 왕이 무엇을 마시기 전에 그 음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직무도 담당했습니다.

The text doesn't tell us the details of the offence...simply that they had both done something that brought wrath & punishment...in the light of the whole story, it seems at least that perhaps one may have been careless...the other, culpable. Either way...the point is that Pharaoh sent them to prison...but it was all part of God's plan.

Notice who it was that appointed Joseph to be with them 'the captain of the guard' — Potiphar himself. A sign to Joseph of the Lord's sovereign grace...* The end of v4 tells us they continued for some time in custody...

V5, 'one night they both dreamed — the cupbearer and the baker of the king of Egypt, who were confined in the prison — each his own dream, and each dream with its own interpretation.'

We remember 3 chapters earlier the self-absorbed manner in which Joseph recounted his two God-given dreams to his family.....but here, his words in light of his two fellow-prisoners' dreams shows how much God has already been at work to build his character

V6, 'When Joseph came to them in the morning, he saw that they were troubled. So he asked Pharaoh's officers who were with him in custody in his master's house, "Why are your faces downcast today?"'

Notice how sensitive & other-person centred Joseph is... In God's economy — His providence, our sufferings are never in vain. You & I are who we are, for His glory — in significant measure because of the many trials he'd already endured. Not only had the Lord been humbling Joseph to help him not be self-centred...but to be God-centred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언급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왕을 화나게 했고 그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말씀 합니다...전체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부주의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애굽 왕이 이들을 감옥으로 보냈으니 이 또한 하나님 계획이 일부였다는 사실 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 관리들을 돌보는 일을 시켰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친위대장"이였고 보디발이 엮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4 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기록합니다.

5 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우리는 이전에 보듯이, 요셉이 자신의 두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도취적인 태도를 기억합니다...그러나 이제 감옥에서, 다른 두 죄수의 꿈을 통해, 요셉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6~7 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구절을 통해 보듯이 이제 요셉은 타인 중심적인 생각과 함께, 이들을 세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요셉을 겸손케 하셔서 자기중심적으로 안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v8, 'They said to him, "We have had dreams, and there is no one to interpret them." And Joseph said to them,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Please tell them to me."

In response to the problem...Joseph's immediate answer was God-centred with his rhetorical question,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He gives God the glory for what he foresees he is able to do...He invites them to tell him their dreams...

How we respond by way of reflex to all kinds of situations indicates the degree to which humble dependence on God's-grace has really gripped our hearts. It's can be easy to respond in a friendly manner when life is relatively untroubled... How we respond immediately to situations particularly when we're struggling with our own difficult circumstances, can be an indicator as to the degree to which we trust in the Lord's sovereignty in all circumstances ...

Joseph's compassion in his own situation is a godly example to follow...& the Lord is ready to pour such transforming grace into our lives to humble & hone us! Even to empower us for the works of service Eph 2 tells us He has prepared us to do!

God's Revelation & Unconditional Interpretation (9-19)

In response to Joseph's request, we read v9, 'So the chief cupbearer told his dream to Joseph and said to him, "In my dream there was a vine before me, and on the vine there were three branches. As soon as it budded, its blossoms shot forth, and the clusters ripened into grapes. Pharaoh's cup was in my hand, and I took the grapes and pressed them into Pharaoh's cup and placed the cup in Pharaoh's hand."

8 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들의 근심에 대한 응답으로,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답안을 제시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는 자신아 보고 해석 할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꾸 꿈에 대해 말해보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 삶이 평안할 때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타인에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지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관원장에게 보인 동정은 좋은 경건의 모범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함 가운데 연마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이런 변화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조건 없는 해석. (9~19)

9~11 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Then Joseph said to him, “This is its interpretation: the three branches are three days. In three days Pharaoh will lift up your head and restore you to your office, and you shall place Pharaoh’s cup in his hand as formerly, when you were his cupbearer. Only remember me, when it is well with you, and please do me the kindness to mention me to Pharaoh, and so get me out of this house. For I was indeed stolen out of the land of the Hebrews, and here also I have done nothing that they should put me into the pit.”

Joseph doesn’t hesitate or delay...the Lord had obviously gifted him not only with divine dreams of the past...but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here.

Notice how Joseph recounts his trial. He only does it after He gives the interpretation... It’s a sign of the grace in his own life that he freely helps them — without condition ...

So often we have ulterior motives in our words & actions — ‘If you do for me, then I’ll do for you’ ‘you scratch my back, I’ll scratch yours’ Joseph simply interprets to help the cupbearer & asks for mercy in saying, ‘remember me’& does it humbly as we read him say, ‘please do me the kindness to mention me to Pharaoh, and so get me out of this house’ ...

Despite Joseph’s elevation to a position of authority...the prison was obviously an oppressive place. He tells the cupbearer he was stolen from the land of the Hebrews & had done nothing wrong to deserve imprisonment.

12~15 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여기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주님께서는 과거에 요셉에게 꿈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지난날의 환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에야, 자신이 당한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셉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속셈을 가지고 행동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걸 해주면, 내가 해줄게요.”... “당신이 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 그때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 줄게요” 그러나 요셉은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관원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를 도와주었고, 돕고 난 후에, 그가 자기를 기억해야, 자비를 베풀기를 호소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비록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랐더라도, 여전히 감옥은 억압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원장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The pit was the prison or house of their custody. The word can also mean a well or cistern...here we understand it as a dungeon...a dark & dreadful place of Joseph's confinement. It was the same word for the hole in the ground that Joseph's brothers had put him 11 years earlier. What stands out in Joseph's retelling is an absence of bitterness...he just asks that the cupbearer remember him to Pharaoh so he might gain his freedom.

This not only shows Joseph's abiding trust in the Lord's sovereignty, but also that he saw value in seizing on the opportunity as it came to him to be free. When the Lord visits trials upon us — He doesn't expect us to be fatalistic as if we simply have to 'grin & bear it.' We remember the Apostle Paul's instructions to slaves in 1 Corinthians 7 "if you can become free, by all means take the opportunity"

The Lord would have us use our wisdom to be free of all manner of trials as He provides opportunity — though not to live as if we will find contentment by changing our circumstances. The underlying principle is to rest in the Lord.

Spurred on by the good outcome for the cupbearer, the chief baker tells Joseph his dream as well ...three cake baskets on his head & in the top one 'all sorts of baked food'... with birds eating the bread. In a dictionary of ancient Egypt, it lists 38 different kinds of cake & 57 varieties of bread that was part of their diet ...

Joseph's explanation is to the point v18, "This is its interpretation: the three baskets are three days. In three days Pharaoh will lift up your head — from you! — and hang you on a tree. And the birds will eat the flesh from you."

요셉이 자신이 갇힌 장소를 "옥"이라 표현할 때, 이는 우물이나 수조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요셉이 갇혀있던 장소는, 지하 감옥으로, 매우 어둡고 끔찍한 장소였음을 의미하고, 11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가두어 뒀던 땅 구덩이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각되는 사실은, 요셉의 말 가운데 그 어떤 비통함을 찾아볼 수 없고, 그는 그저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달라 부탁할 뿐입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 주권에 대해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유로워질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단순히 '웃고 참아야만 하는' 운명론적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새번역)

삶의 환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런 환란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저변에 깔린 원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술 관원장의 꿈이 해석되는 것에 자극받아, 빵을 구워 올리는 관원장 또한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빵을 담은 광주리 세 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었고, 제일 윗 광주리에는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었고,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전을 보면 당시 38개의 다른 케이크가 있었고 57개의 다른 빵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18~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꿰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The absence of any record of Joseph attempting to console the baker makes us wonder whether his powers of perception also detected an unrepentant wickedness...that the baker was in fact guilty of high treason against Pharaoh...

From Interpretation to Reality (20-23)

v20, 'On the third day, which was Pharaoh's birthday, he made a feast for all his servants and lifted up the head of the chief cupbearer and the head of the chief baker among his servants. He restored the chief cupbearer to his position, and he placed the cup in Pharaoh's hand. But he hanged the chief baker, as Joseph had interpreted to them.'

The Pharaohs had a practice of granting amnesty on special anniversaries ...the occasion was his birthday...he lifted up the heads of the cupbearer and the baker...to mean — he shone the public spotlight on each of them...one for restoration...the other for condemnation. The dreams became a reality as Joseph's interpretation had said they would....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 But the last verse of the chapter brings us back to another reality....(v23), 'Yet the chief cupbearer did not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

It's the hard reality of life that someone's thoughtlessness — this cupbearer's forgetfulness meant that Joseph suffered injustice for two more years...What might Joseph may have been tempted to think? Life's unfair, the Lord doesn't care.....* As we'll see next week....the cupbearer's forgetfulness would be part of God's sovereign perfect timing

In the frailty of humanity, the fallout that comes from another's negligence & even times when we become the victim of someone else's evil actions..... the Lord remains sovereign in being at work particularly to prepare us, His loved ones for greatness.....to order the timing of events....even & particularly in & through the greatest trials. We have sure hope because the Lord always remembers our plight — he never forgets our pleas

해석에서 현실로 (20~23 절)

20~22 절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바로는 당시 특별한 기념일에 사면하는 관행이 있었고, 보통 그의 생일에 이를 행했습니다...그래서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사면하였고, 빵을 맡은 관원장을 처형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이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 또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23 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으므로,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억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맞을 수 있는 유혹은 무엇이었을 까요?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고, 주님께서 신경 쓰지도 않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구절을 통해서 보듯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의 일부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타인의 태만함과 이들의 사악한 행동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런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간청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The Lord who Never Forgets

18 centuries after Joseph, as the cogwheels of circumstances were justly turning against him.....another prisoner asked to be remembered to the king... Luke 23:42 records him as saying,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It was at that point that everything that had once seemed against him by God’s sovereignty turned in his favour with eternal saving grace...Jesus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The years in prison & the extra 2 due to the cupbearer’s negligence was Joseph’s preparation for greatness. Just as the cross was God’s means for the criminal to receive grace to enter paradise

Even the suffering of Christ was God’s plan to perfect Jesus to bring many sons to glory (Hebrews 2:10)... His death is the price paid to justify & secure the perseverance of all who call upon Him

The trials we endure are the cogwheels of God’s grace in this life to prepare each of us for the glory that’s coming — as He humbles us & shapes our characters..... Until he calls us home — where He will raise us in glory

*Our Lord Jesus purchased our sonship so that particularly our hardships — as for Joseph — become God’s preparation for ultimate greatness.

Hebrews 12:11, “For the moment all discipline seems painful rather than pleasant, but later it yields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요셉으로부터 18 세기가 지난 후, 상황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죄수가 왕에게 기억되기를 요청 합니다...눅 23: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때 그에게 불리하게 보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영원한 은혜로 변한 것은 바로 그때였고...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이 죄수에게 십자가에 매달림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과 같이, 요셉이 이 술 말은 관원의 부주의로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게 됨은, 창대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고난 또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히 2:10). 그의 죽음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의롭고 이들을 견인 하기 위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어,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우리 각자를 그 은혜 가운데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히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